

아시아 와인의 허브, 홍콩

홍콩지사

와인 관련 산업의 중심지

- 2008년 와인에 부과하는 세금이 전면 폐지된 이후 홍콩은 와인뿐만 아니라 와인과 관련한 각종 전시, 관광, 요식산업이 빠르게 성장해왔다. 또한 중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재수출 되는 와인에 대한 세관절차를 간소화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와인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수출업체들에게 유리한 교역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는 중국의 모든 관세 구역에서 홍콩으로부터 재수출되는 와인에 대한 즉각 통관이 가능해졌다.
- 홍콩은 런던과 뉴욕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의 와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winespectator.com」에 따르면 작년 한해 홍콩의 총 경매 매출은 9,780만 달러(약 1,095억 원)를 기록했다.

와인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주최

- 홍콩은 와인과 관련한 무역, 투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칠레, 호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박람회, 세미나, 시음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비넥스포(Vinexpo), 홍콩인터내셔널 와인앤스프리즈 페어(Hong Kong International Wine & Spritis Fair)는 홍콩에서 열리는 영향력 있는 박람회로, 아시아시장 마켓테스트 및 신규 브랜드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와인앤다인 페스티벌(Hong Kong Wine & Dine Festival)은 홍콩을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로,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회, 판촉부스, 소비자 체험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고급와인과 음식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어 홍콩을 찾는 관광객 및 현지인들로부터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와인 수입현황과 주요 수입국

- 2008년 관세를 철폐한 이후 10년간 홍콩의 와인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무역발전국(HK-TDC)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홍콩의 와인 수입액은 62억 홍콩달러(약 8,873억 원)로, 2007년 한해 16억 홍콩달러(약 2,290억 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했다.
- 홍콩의 주요 와인 수입국은 프랑스, 호주 및 미국 등의 국가이다. 2017년 총 수입량의 22%를 프랑스로부터 수입했으며 호주산 17%, 미국산 와인이 14%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홍콩으로 수입되는 와인의 상당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재수출되고 있으며, 중국내륙과 마카오로 재수출되는 양이 가장 많다.

와인 유통,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확대

- 홍콩에서는 대형유통매장, 편의점, 술집, 와인전문점에서 와인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매장 내에는 와인 전문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와인판매 뿐만 아니라 와인 저장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와인시음과 와인전문가인 소믈리에(Sommelier) 설명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 최근에는 와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샵(Shop)이 많아지고 있는데, 간편하게 주문한 와인을 빠른 시간 내에 집에서 직접 배송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홍콩은 와인과 관련하여 우수한 무역 조건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국산 주류 및 관련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따라서 홍콩에서 개최되는 영향력 있는 박람회 및 행사 등의 참가와 신유통플랫폼으로의 진출을 통해 홍콩시장 공략 및 신규 수요시장으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홍콩 와인관련 주요 행사



2018 Vinexpo Hong Kong



Hong Kong International Wine & Spirits Fair



2018 Hong Kong Wine & Dine Festival